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Broadcast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the day.

장덕을 기억하며... '애 애' 젊은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다

레인보우 노트, 트리뷰트 프로젝트 발매

시티팝 듀오 레인보우 노트가 한국 가요사의 천재 여성 싱어 송라이터 고(故) 장덕의 '애 애' (사진)를 현대적 감각으로 리메이크한다.

레인보우 노트 소속사 루비레코드는 장덕의 노래를 후배 뮤지션들이 다시 부르는 '장덕 트리뷰트 프로젝트(Tribute Project)' 세 번째 곡 '애 애'가 10일 발매된다고 밝혔다.

'애 애'는 1988년 9월 발매된 장덕의 '애애-골든 앨범 vol.2' 타이틀곡으로, 그룹 김트리오의 리더 김파가 작곡하고 장덕이 작사했다. 미국의 고전 로큰롤 리듬과 드림 비트의 정서가 흐르는 밝은 트랙이다.

음악 저널리스트 김성환 씨는 "항상 자신이 만든 곡 위주로 노래했던 그녀에게 색다른 도전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원숙한 표현력으로 리듬을 타는 그녀의 보컬 능력은 이 곡에서도 빛이 난다"고 짚었다.

여성 시티 팝 듀오 레인보우 노트는 원곡의 상큼한 분위기를 살리면서 젊은 감각을 더해 자연스러운 신스-펍키 팝으로 재탄생시켰다.

레인보우 노트는 지난해 12월 '장덕 트리뷰트 프로젝트'의 첫 주자로 장덕의 '님 떠난 후'를 청춘 감성에 맞게 커버해 선보였다.

두 번째 주자로는 가수 모트가 나서 '소녀와 가로등', '점점 더 가까워져요' 두 곡의 리메이크 버전을 발표했다.

'장덕 트리뷰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남이섬 노래박물관 앞에 그를 추모하는 노래비가 건립되는 등 최근 장덕의 음악적 유산



산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장덕은 어린 나이에 싱어송라이터로 두각을 드러낸 것은 물론 연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청춘스타'이자 엔터테이너였다. 오빠 장현과 결성한 듀엣 '현이와덕이'는 한국판 카펜터스로 불리며 주목받았고 남매가 배우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1990년 남매가 잇달아 요절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달 4일은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장덕의 31주기였다.

/연합뉴스

영화 '미나리' 61관왕... 워싱턴DC 비평가협회 수상

윤여정 여우조연상 21관왕 '신기록 ing'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2020년 미국 워싱턴DC 비평가협회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하며 세계 영화상 61관왕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배우 윤여정이 받은 상만 21개에 달한다.

또 '미나리'는 미국방송영화비평가협회(BFCA)가 선정하는 '크리티컬스 초이스' 영화상에서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아카데미상(오스카)을 향한 레이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배급사 판세네마에 따르면 '미나리'는 8일(현지시간) 2020 워싱턴DC 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 아역배우상 부문

을 수상했다. 이로써 세계 영화협회 및 시상식 수상 기록은 도합 61관왕이 됐다.

여우조연상은 영화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는 할머니 '순자' 역을 맡은 윤여정이 받았다. 윤여정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미국 여성 영화기자협회, 골드 리스트 시상식, 섀넌 필름 서클 어워드 등에서 21관왕을 기록했다. 윤여정은 미국배우조합상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 부문 후보로도 올라갔다.

'미나리'는 이날 크리티컬스 초이스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 촬영, 외국어 영화상 등 모두 10개 부문 후보로도 선정됐다.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후보에, 주연 스티븐 연은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

Horoscope section for February 10th (2월 10일). Includes zodiac signs (子, 卯, 丑, 寅, 午, 未,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birth dates and characteristics.

Large advertisement for Hanil Solar Energy (한일솔라에너지). Features the slogan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Solar Power Plant First-Come First-Served Sale!!) and details about 20-year contracts, guaranteed income, and regional availability.